

모피·돌침대 없어서 못판다

작년보다 83~125% 매출 급증 히터·전기매트 20~30% 신장 유통가 추위에 겨울용품 '불티'



본격적인 한파가 계속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모피 등 겨울 의류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광주 신세계의 경우 지난해 겨울보다 80% 이상 매출이 치솟는 등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한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난방기구나 겨울의류 등을 찾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크리스마스 세일, 브랜드 세일, 재고 처리 세일 등 할인행사가 집중되고, 지난해와는 달리 겨울다운 추위 탓에 히터, 전기매트·요 등 난방용품은 물론 겨울의류까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광주신세계, 롯데백화점 광주점, 현대백화점 광주점 등 지역 백화점 3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비 겨울 의류는 5~10%, 목도리나 장갑 등 잡화류의 경우 20~30%, 전기매트·요 등은 5~10%까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백화점들은 이 같은 겨울 상품들의 선전에 힘입어 올 연말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모피나 돌침대 등 고가 상품들의 매출은 50% 이상 큰 폭으로 늘어 부유층들의 겨울 소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겨울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광주신세계를 찾은 정모(47)씨는 "할인 폭도 크고, 지난해보다 조금 여유도 있어 아이들과 남편의 겨울 의류를 이번에 모두 구입하기 위해 백화점을 찾았다"며 "집의 외

풍도 심해 히터나 전기매트 등도 가격대가 맞으면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지난 25일까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전기매트·요 7.3%, 장갑·머플러 22.8%, 모자 10.7%, 등산복 등 아웃도어 30.5%, 여성의류 7.6%, 남성의류 12%, 골프웨어 13.9% 등의 신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판매가 주춤했던 모피와 돌침대 등은 각각 83.1%, 125% 등 급증세를 보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해 대비(12월1일~23일) 난방용품 매출이 15% 이상 높은 신장세를 기록했다. 5만원대의 전기요, 10만~20만원대의 전기

매트는 물론 전기히터, 옥매트, 가습기, 선풍기 난로 등 겨울철 필수 아이템들이 골고루 잘 팔리고 있다.

각 품목별로 신장세를 살펴보면, 전기요 약 5%, 전기매트 약 7%, 전기히터 3%, 옥매트 4%, 가습기 13%, 선풍기난로 9%, 스키·보드 의류용품 2%, 툴부츠 6%, 극세사 침구 3% 등이다. 겨울내복의 경우 매출이 평균 이상인 25% 늘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역시 난방용품과 겨울의류를 중심으로 5~10%의 매출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KT 5992명 명예퇴직

광주·전남 500명 포함...기업 체질 혁신 기대

KT 직원 6천여명이 명예퇴직한다. KT는 지난 14~24일까지 진행된 특별 명예퇴직(이하 명예퇴)을 통해 모두 5천992명이 퇴직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KT 직원은 500명(광주 267명·전남 233명) 포함됐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구 KTF와 통합되기 전인 지난 2003년 5천505명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번 명예퇴직 대상 직원은 전체 직원 3만7천명 중 2

만5천명으로 4명에 한 명 꼴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셈이다.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명예퇴직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50.1세였고 평균 재직기간은 26.1년이었다.

KT는 이번 명예퇴직 임직원 수는 기존 3만7천명에서 3만1천으로 감소하고 매년 약 4천60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기업 체질 혁신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 평균 100명대에 불과하던 신규채용 규모도 700명 가량의 신입 및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등 대폭 확대해 조직을 젊게 하고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이번 명예퇴직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상당액의 자금이 소요, 올해 영업이익 규모는 당초 1조8천억원에서 9천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은행권 中 小 대출만기 6개월 연장

은행연합회는 28일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프로그램(신속 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지난 2월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원화 대출의 만기를 올해 말까지 전액 연장 조치했다.

또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난 11월 말까지 1만1천56개

중소기업에 23조1천838억 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대주단협의회 협약을 내년 8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지원책을 일시에 중지하면 중소기업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이차적 연장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삼성 벌써 에어컨 바람

피겨여왕 김연아 앞세워 '하우젠' 마케팅 돌입

삼성전자가 '피겨여왕' 김연아를 앞세워 연말연시부터 에어컨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의 생활가전 브랜드 '하우젠'은 28일 공중파 TV 등을 통해 김연아가 등장하는 연말 카운트다운 티저 광고인 '아듀'편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 광고는 김연아가 각국 사람들과 함께 2010년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의 제로를 외치며 환호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제로에서 시작~"을 외치는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통해 2010년 새물결 출발하

는 삼성 하우젠 에어컨에 대한 공급증을 고조시키는 형태의 티저광고"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아울러 이날부터 '연아제로닷컴(www.yuna0.com)'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하우젠의 고급 에어컨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연아제로닷컴에서 지원사유를 올려 '체험단'으로 선발된 50명에게는 400만원 상당의 하우젠 에어컨 신제품이 무상으로 제공(제세 공과금은 본인 부담)된다.

/연합뉴스

광주세관, 24시간 특별 통관 지원

광주본부세관은 28일 연말연시를 맞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수출입 기업체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출 화물과 수출용 원자재의 통관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8

일 동안 '수출입 화물 특별 통관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특별통관 지원팀'을 편성, 운영한다.

이 기간에 수출 물품의 적기 선적을 위해 심야 새벽 시간에도 전화나 구두에 의한 요청이 있으면 업무를 지원하고 특별한 우범 정보가 없는 한 검사를 생략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 수출용 원자재 등 긴급 물품 수입 통관을 위해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등 사전 통관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본부세관은 연휴 기간에 수출입 화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내 수출입 업체와 관세사, 보세 운송업자 등 관련 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장필성기자 bungy@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685.00 (+3.25)
▼ 코스닥지수	506.07 (-5.12)
▲ 금리 (국고채 3년)	4.36% (+0.04)
▼ 원·달러 환율	1,170.20원 (-4.8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1) 227-9940
 순천점 (061) 752-9940
 송정점 (061) 227-9970
 목포점 (061) 262-9280
 석산점 (063) 851-2422

하이난

무안 ↔ 하이난(삼아) 직항

항선	출발	도착	항공료	항공료
무안-하이난	08:00	10:00	150,000원	180,000원
하이난-무안	10:30	12:30	150,000원	180,000원
무안-하이난	13:00	15:00	1,180,000원	1,180,000원
하이난-무안	15:30	17:30	1,180,000원	1,180,000원
무안-하이난	18:00	20:00	1,180,000원	1,180,000원
하이난-무안	20:30	22:30	1,180,000원	1,180,000원

문의: 061-227-9940